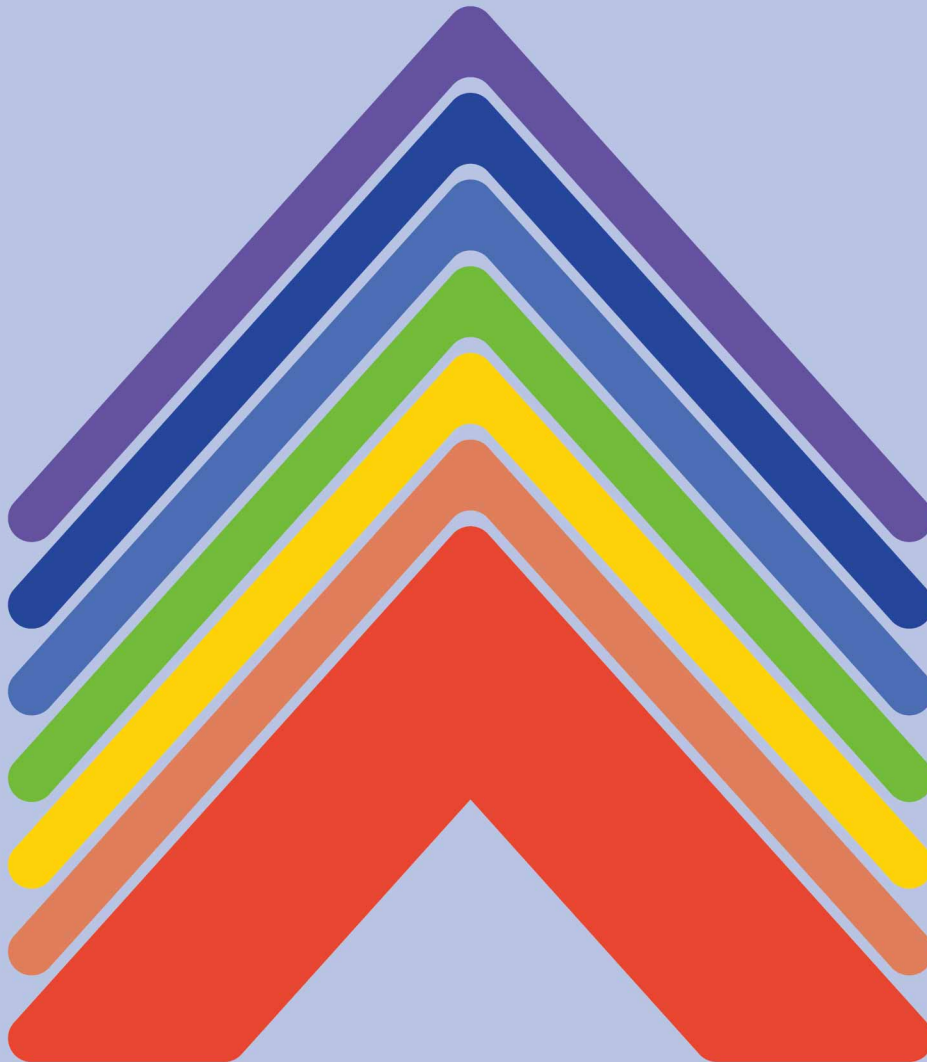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2  
2025년 2월



전라남도  
고흥 우도

FRIENDS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2  
2025년 2월



전라남도  
고흥 우도

FRIENDS  
PHOTOSTORY  
LIFESTYLE  
RESOURCES  
PEOPLE  
TRAVEL  
NEWS & ISSUE

시옷 Vol 42 ●●● 고흥 우도

## CONTENTS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03 굴과 석화

###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4 우도가 주는 겨울 선물을 받으세요!

: 김준 님

###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8 차로? 도보로? 우도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10 물때에 따라 움직이는 삶,  
갯벌에서 배운 섬 주민들의 지혜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섬센터에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 전화 : 061-286-6764 - 이메일 : fun1015@korea.kr

전남의 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2 썰물 시간표에 맞춘 인생 스토리

: 김정환 님

14 우도의 과거로 떠나는 시간캡슐 여행

: 박성내 님

###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6 1월부터 12월까지,  
우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18 우도 투어가이드

20 우도의 인생샷 명소, 이곳은 놓치면 섭섭해요!

22 갯벌에서 시장까지 이어지는 우도 주민의 하루

### NEWS & ISSUE

섬, 소식을 전해 드려요

24 이달의 주요 섬 뉴스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발간된 '시옷'이 궁금하다면?



### 도움 주신 분

-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이사
- 박성내 고흥 우도 주민
- 남양면사무소 전해진 주무관
- 김정환 고흥 우도 이장
- 정성숙 부녀회장

### 발행처

-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 글 · 사진 : 정태균, 김신연, 김도진



#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 우도가 주는 겨울 선물을 받으세요!

김준(섬문화답사기 저자, 한국섬진흥원 이사,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영광 백수해안도로나 여자만 순천 와온 노을이나 여수 섬달철 노을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득량만 고흥 중산 노을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더구나 우도를 배경으로 지는 노을은 색다른 맛이다. 갯벌 너머로 오뎅 솟은 섬을 배경으로 지는 석양은 중산 노을이 갖는 특징이다. 최근 중산리와 우도를 잇는 무지개 다리가 개통되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득량만 구석에 웅크리게 자리 잡은 우도는 보성 벌교에서 고흥으로 가는 나들목에 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동쪽 여자만 여자가 보일 것만 같다. 득량만 갯벌은 해양생물과 물새들의 터전이지만, 여전히 어민들은 개를 막고 트며 갯살림을 이어가는 삶의 공간이다.

섬 단어 사전

## 굴과 석화

▲ 고흥 우도 갯바위에 피어난 돌꽃 같은 석화

고흥 굴 재취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과정

\* 영상정보 : [섬마을식탁] ep.2 고흥 우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굴은 오래된 바다 음식이다. 굴은 인류와 오래전부터 함께 했던 먹거리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대표적인 유적인 조개무지(패총)의 대부분이 굴 껍데기다. 송나라 사신 서긍의 고려 여행기 『고려도경』에는 굴이 고려 서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조선시대 『태종실록』에는 1431년 섬진강 하구에서 굴 양식, 여자만에서 꼬막 양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자산어보』에는 굴을 모려(牡礪)하며, 그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구름조각 같으며 껍데기는 매우 두꺼워 종이를 겹겹이 발라놓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산양식의 발자취』에 굴 양식 면하는 1910년 함경북도 영흥만에서 일본인에게 내준 것이 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서남해안 갯벌에 돌을 집어넣어 만든 굴밭과 나뭇가지를 꽂아 굴 양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착성이 강한 굴이 갯벌 위 나뭇가지나 돌에 붙어 자라면서 서로 엉겨 만들어진 것이다. 갯바위에 다닥다닥 붙은 굴을 살펴보면 꼭 ‘돌꽃’ 같아서 전라도에서는 석화(石花)라고 부른다.



## 이야기 #01

## 조새에 기댄 우도 겨우살이

우도는 노돛길이 열리면 차를 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새로 열린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것도 좋다. 친구와 연인과 손을 잡고 걷기 좋은 폭에 거리도 적당하다. 다리 밑에 보이는 갯벌은 온통 굴밭이다. 우도 주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갯벌이다. 벌교장이나 동강장에서 눈 밝은 사람들 우도 굴이라면 묻지도 않고 산다. 양식을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자연산 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간혹 갯골에 얹은 물새들이나 낙지나 칠게를 잡는 어민도 만날 수 있다. 갯벌에서 굴을 팔 때 의지하는 것은 육신과 조새뿐이다. 여자만처럼 뽕배를 이용할 수도 없다. 두 발로 굴밭까지 바닷물과 갯벌이 만나는 곳까지 걸어가 호미로 굴을 파서 자루에 담아야



▲ 박신작업(굴까기)을 할때 사용하는 조새

한다. 집집마다 자기 굴밭을 갖고 있다. 굴막으로 옮겨온 굴은 시나브로 조새로 간다. 30센티미터 남짓 되는 조새는 우도 어머니들이 겨울을 나는 벗이다. 남편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조새 없이는 살 수 없다. 무지개 다리 건너 섬에 이르면 첫 풍경이 굴막이다. 우도에는 네 집이 굴막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굴을 까서 팔았다. 조새는 현존하는 어로 도구 중 가장 오래 전승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갯벌에서 발굴한 ‘완도선’에서 조새가 발굴되었다. 조새의 방아쇠와 갈고리는 부식되었지만 손잡이에 해당하는 몽둥이는 남아 있다. 1천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모양의 조새를 사용했다니 놀라울 뿐이다. 선사시대 유적인 조개더미(패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굴 껍질이다.



▲ 득량만 깊은 보물 고흥 우도의 노을

## 이야기 #02

## 고흥에서 먹어야 하는 겨울별미 ‘피굴’

고흥 득량만 뽕밭에서 자란 굴은 피굴로 먹기 딱 좋다. 통영이나 거제 굴처럼 크지도 않고 서산이나 태안 굴처럼 작지도 않다. 그리고 득량만 가장 안쪽에 있어 조차가 크다. 굴의 크기는 조차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우도 굴은 알굴 크기는 적당하고, 탱글 탱글하다. 고흥은 일찍부터 진석화젓이 유명했던 곳이다.

여기에 제철에 맛볼 수 있는 피굴도 빼 놓을 수 없다. 작은 굴 하나도 그 성질에 맞게 음식을 만들었던 주민들의 지혜가 돋보인다. 우선 우도 굴을 구입했다면 흐르는 물에 몇 번 다시 씻으면 좋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씻지만 뽕밭에서 자란 탓이다. 그리고 숯이나 찜기에 넣고 굴을 찐다. 이때 찜용 받침을 이용하면 깨끗한 찜굴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칼을 이용해 껍질을 벗겨내 알과 조가비 안에 담긴 육즙을 따로따로 갈무리 한다. 굴에서 나온 육즙은 모아서 여러 차례 걸러낸다. 한지나 거름막을 이용하면 더욱 좋다. 그리고 다시 굴을 육즙에 넣는다. 여기에 파 썰어 넣고, 깨소금 더해서 먹는다. 동치미처럼 시원하게 먹는 것이 특징이다. 고흥 사람들이 명절이나 겨울 잔치에는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피굴이다. 피굴은 껍질이 품은 육즙까지 내서 먹는다. 최근 고령화로 굴밭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고흥에서는 도시민에게 유자나무를 분양한다. 팜파티를 겸한 작은 축제를 열고, 수확철에는 직접 거두어 간다. 우도 굴밭도 그렇게 이용할 수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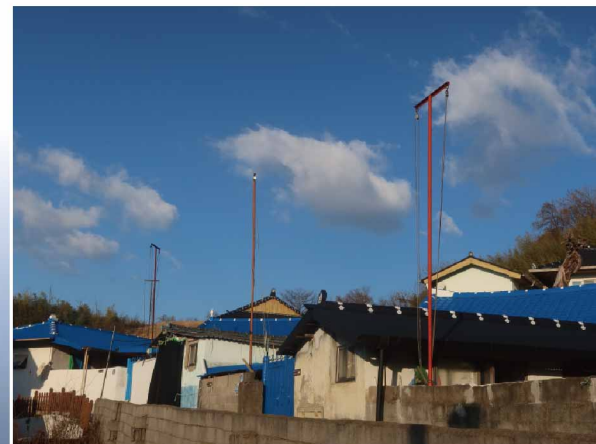


▲ 고흥 우도 피굴 요리

## 이야기 #03

## 우도 골목길 단상과 섬밥상

우도 골목길을 걷다가 반가운 물건을 발견했다. 고흥살이를 시작하면서 언젠가 나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참이었다. 회관에서 선창으로 가는 골목길에 세 집이 잇달아 담장에 기대어 장대를 세워 놓았다. 생선을 건조망을 걸어 두는 장대다. 고양이나 쥐 등 들짐승이 생선을 훔쳐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봄에는 송어, 가을에는 장대나 망둑어를 말린다. 이렇게 말린 것은 명절이나 제사에 제물로 올리거나 동강장에 가져다 판다. 자식들에게 보내기도 한다. 물때가 좋을 때면 횡감으로 좋지만, 유통이 쉽지 않다. 또 생물이란 어장을 보는 날과 장날에 딱 맞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때는 꾸덕꾸덕 말리는 것이 좋다. 몇 해 전에 고흥살이를 시작 하면서 지인들과 우도를 걸었다. 그때 이장님께 부탁해 어렵게 우도 섬밥상을 받았다. 봄철에 나오는 주꾸미, 낙지, 송어회, 바지락탕, 나물, 굴전 등 밥상을 보는 순간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물때에 맞춰 바지락 캐고(섬 동쪽은 굴밭이고 서쪽에는 바지락 밭이 있다), 송어와 주꾸미를 잡았다. 남의 입에 밥 들어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가. 그 수고로움을 알기에 부탁하기 어렵다.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을 만나면 두고두고 그 밥상을 이야기한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이럴 때 장대에 걸어 말린 생선pins을 올리면 좋지 않겠는가. 다리가 놓였으니 섬을 찾는 여행객에게 섬밥상을 차려내는 집이 생기면 좋으련만 아직은 때가 아닌 모양이다.



▲ 고흥 우도 주민들의 집에 설치된 장대



▲ 정성이 가득한 우도 섬밥상





▲ 갯벌에서 작업중인 우도 어머니들

## 이야기 #04 그녀들의 우주, 갯벌

바다가 남자들의 어장이라면 갯벌은 어머니들의 텃밭이다. 우도는 바다의 텃밭인 갯벌에 의지해 생활한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제 그 경계는 의미가 없다. 내만 안쪽까지 들어오는 물고기가 크게 줄어 통발이나 그물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러니 선원 대신에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싫든 좋든 부부가 함께 배에 올라야 한다. 지금도 바다에서는 송어, 감성돔, 장대, 전어, 주꾸미 등이 철 맞춰 올라온다. 갯벌에서는 굴, 바지락, 낙지, 새꼬막을 얻는다. 갯벌은 우도 주민들의 저금통이고 반찬통이었다. 그렇다고 바다와 갯벌이 화수분은 아니다. 아낌없이 내줄 수 없다. 요즘 바다도 갯벌도 힘들어한다.

해녀들에게 물질하는 바다는 그들만의 우주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자식도 간섭할 수 없는 오롯이 당신만의 사유의 공간이다. 물에서만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녀들은 또 다른 세상을 산다. 힘들어도 움직일 힘만 있으면 물질을 하겠다는 이유다. 우도의 어머니들에게 갯벌이 그런 세계다. 바람이 무지개다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불어도, 갯벌이 드러나면 갯벌으로 나간다. 돈벌이 이상의 또 다른 세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 레인보우교의 시작을 알리는 간판석

## 차로? 도보로? 우도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때 우도는 바닷길이 열려야만 닿을 수 있는 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답니다. 2024년 4월 국내 최장 보행자 전용 다리 '우도 레인보우교'가 완성되면서 물때를 기다리지 않아도 우도로 향할 수 있게 되었어요.

### #01 바다 위를 걷는 길, 우도 레인보우교



▲ 레인보우교에서 바라본 우도

걸음을 옮길 때마다 두 눈에 담기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갯벌의 풍경이에요.

과거에는 바닷길이 열려야만 섬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물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다리 한가운데쯤 가면 교각이 높아지는 구간이 나타나요. 그곳에 서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고요한 수면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바람이 가볍게 지나가는 순간 우도는 어느새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 #02 차로 둘러보는 우도의 풍경

다리를 건너 우도에 닿으면 섬을 한 바퀴 도는 해안도로가 펼쳐집니다. 조금 빠르게 섬을 둘러보고 싶다면 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고즈넉한 바다와 섬 갯벌 위를 거니는 새들, 주민들의 생활과 개성넘치는 집들, 속도감 있게 움직이며 우도의 넓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집들 ▶



▲ 바닷길이 열린 후 갯벌로 향하는 주민들

## #03 천천히 걸으며 만나는 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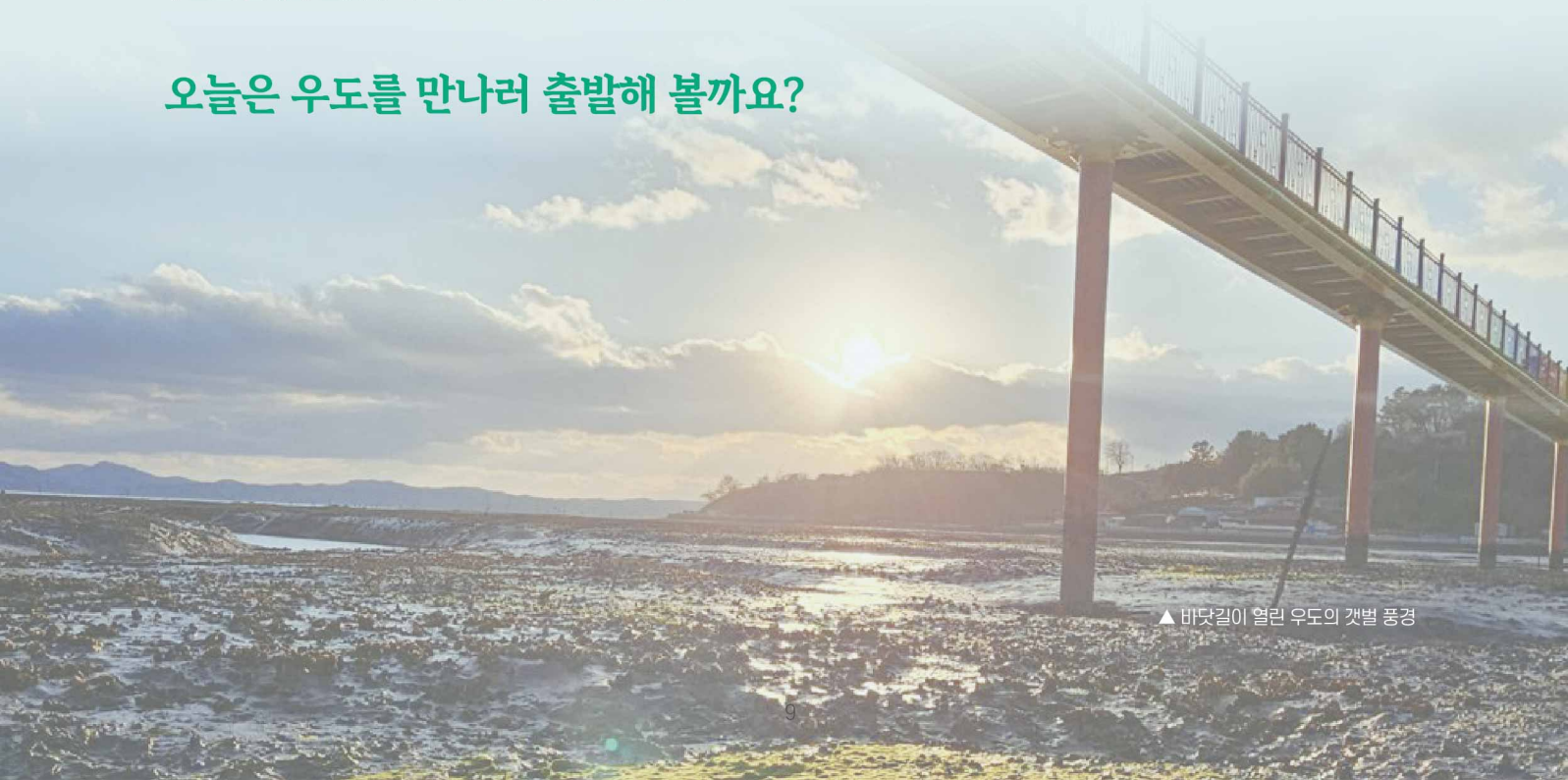
우도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싶다면 차대신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걸음이 느려질수록 섬이 들려주는 소리는 많아집니다. 갯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손길 바닷길이 열리며 오가는 정겨운 인사 소리,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짭조름한 내음. 차로는 스쳐 지나갈 순간들이 도보 여행에서는 오롯이 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행을 해도 우도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차로 빠르게 한 바퀴를 돌아볼 수도 있고, 천천히 걸으며 섬의 숨결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우도는 언제나 그곳에 머물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우도를 만나러 출발해 볼까요?



▲ 바닷길이 열린 우도의 갯벌 풍경

#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 물때에 따라 움직이는 삶, 갯벌에서 배운 섬 주민들의 지혜

섬마을에서 발견한 작은 수조, 주민들이 만든 또 하나의 공간  
바닷길이 열린 우도 갯벌 사이로 네모난 시멘트 웅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연이 만든 흔적 같지 않은 이 공간!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이곳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 우도마을 입구의 인공 수조



물은 맑았고, 깊이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안쪽에는 굴이 담긴 망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여긴 뭐하는 곳일까요?"

처음엔 그냥 작은 웅덩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섬 주민들이 갯벌에서 채취한 굴을 담가두는 저장 공간이었어요.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 위에서 일하고 다시 바닷물이 차오르기 전까지 해산물을 이곳에 담가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주민들은 바다 일을 마친 후 이곳에서 갯벌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갯가에 나가 채취한 해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바닷가 한쪽에 이렇게 네모난 웅덩이를 만들어 작은 자연 냉장고처럼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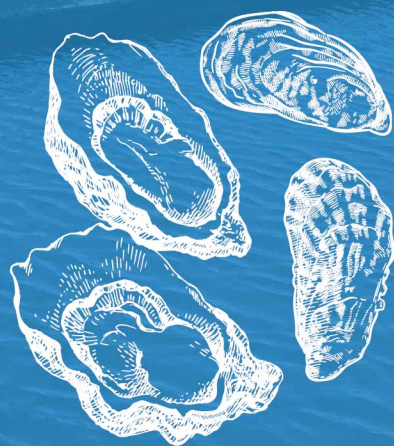
우리는 흔히 바다를 거대한 공간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도의 바다에는 이렇게 작은 웅덩이 하나도 섬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어요.

이곳에서 주민들은 물때를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쌓아가고 있어요.

섬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그중 하나가 지금 이 조용한 웅덩이 속에서 담겨 있지 않을까요?

우도에 방문하시면  
주민들의 지혜를 발견해보세요!



##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흥 우도 이장  
**김정환**

# 썰물 시간표에  
맞춘 인생 스토리



언제부터  
우도에서  
사셨나요?

저는 우도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역 (고흥군 과역리)으로 다녔고 군대에서 돌아온 이후 도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우도로 돌아온 지는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 삶은 바닷물이 열릴 때 나가고 들어오는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결국, 다시 섬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우도는 제게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에요. 섬을 떠나있던 시간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Q 우도의 삶은 어떤가요?

A 썰물과 밀물이 곧 우도의 삶의 시간표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삶이 같지 않을까요?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로 나가 해산물을 잡고 밀물이 들어오면 다시 다음을 준비하죠. 저는 이장으로서 마을을 돌보는 일도 하지만, 어업에도 종사해요. 낙지와 꼬막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이 커요. 우도 주민들은 마을에 작은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갑니다. 이웃들과 단단히 연결된 이 삶이 저는 늘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Q 관광객이 늘면서 변화가 있었나요?

A 레인보우교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섬이 활기를 띠긴 했지만 조용하던 마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이 가정집 가까이까지 들어오거나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도는 주민, 자연, 관광객이 균형을 맞춰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해 활기차지는 걸 반기면서도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 삶을 지켜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마을을 지날 때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생생하고 건강한 자연 생태계를 통해 따뜻한 교류가 이어진다면 우도는 더욱 정이 넘치는 공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Q 우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A 2023년부터 바다 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아 갯벌과 바다를 깨끗이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어업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생태계는 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생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획량이 과거엔 10kg을 잡았던 것이 이제는 5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연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입니다. 섬 주민들은 바다를 이용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바다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Q 앞으로 우도가 어떻게 변하면 좋겠나요?

A 저는 우도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우도 고유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이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랍니다. 다리가 생기면서 더 많은 기회가 열렸지만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주민들이 편하게 살면서도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에디터 이야기 ]

섬에서 사람의 온기를 기록하다

바다는 매일 흐르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쌓여 깊은 흔적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삶은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우도를 지켜나가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닷물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며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고 마을을 지키려는 그의 애정 속에서 섬사람의 진정한 삶을 엿볼 수 있었죠. 그 안에는 단순한 생계를 넘어 섬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묵묵한 인내와 애정이 녹아 있습니다. 우도의 작은 파도 하나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듯 김정환님의 삶 역시 바다처럼 깊고 넓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우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흥 우도 주민  
**박성내**

#우도의 과거로 떠나는  
시간캡슐 여행



## 언제부터 우도에서 사셨나요?

저는 우도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22살에 서울로 시집을 갔죠.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친정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우도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어요. 다시 돌아온 우도는 어린 시절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시간캡슐을 열고 과거로 돌아온 듯했죠. 어릴 적엔 그저 익숙했던 풍경이었는데 다시 보니 바람 냄새, 바다 소리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시간이 흘러도 우도는 여전히 제게 포근한 안식처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 Q 과거의 우도 생활은 어땠나요?

- A** 옛날에는 지금 쓰고있는 장화와 고무장갑이 없었어요. 맨발로 갯벌에 나가다 보면 발이 시리고 굴껍질에 베여 피가 나기도 했죠. 겨울 갯벌의 추위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발이 얼 듯 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시리다 못해 불이 나는 듯한 뜨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발이 무감각해져야 비로소 갯벌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곧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간이 참 길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와 저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삶을 위해 묵묵히 버텼습니다. 지금은 장화도 있고 고무장갑도 있어서 훨씬 편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해요.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 Q 우도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 A**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남편이 건강을 되찾고 다시 갯벌에 나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때예요.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하며 마음이 무거웠는데, 남편의 건강이 회복 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으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죠. 갯벌에서 몸을 움직이며 해산물을 채취하고 손에 묻은 뽕을 털어내며 함께 웃던 그 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기억입니다. 갯벌에서 땀 흘린 후 시장에 가서 해산물을 팔고 번 돈으로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그 순간들이 가장 행복 했던 순간입니다.



▲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박성내님

### [ 에디터 이야기 ]

#### 섬에서 사람의 온기를 기록하다

우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차가운 갯벌을 맨발로 딛던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섬 없이 일하던 날들까지, 그녀의 삶은 늘 바다와 함께 흘렀습니다. 때로는 거친 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지켜냈고 때로는 밀려오는 파도처럼 크고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며 단단해졌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갯벌에서 허리를 숙이고 일하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순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시장에서 번 돈으로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소박한 행복. 그것이야말로 섬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우도의 바람이 불어도 갯벌이 변해도, 섬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나온 삶처럼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시간이 변함없이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 Q 우도의 미래를 어떻게 기대하시나요?

- A** 다리가 생기면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관광객이 많아지는 건 좋지만 쓰레기 문제 같은 불편함도 생겼죠. 개인적으로는 전통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서 할머니들이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가장 바라는 점은 너무 개발되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주는 거예요. 자연이 지켜지는 한 우도에서의 삶도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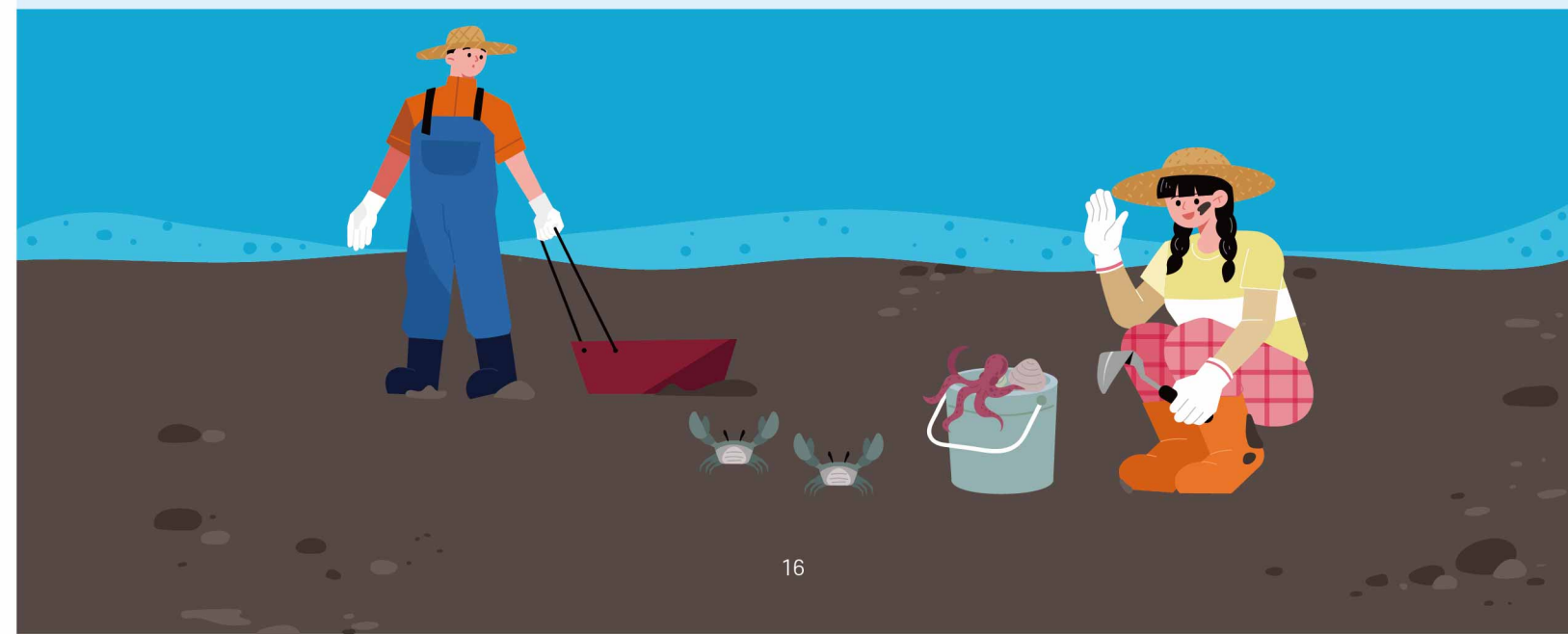
#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 1월부터 12월까지, 우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우도는 고흥반도와 보성군 사이 득량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풍부한 어장터를 자랑하며 계절마다 다양한 수산물이 자라는 곳입니다. 갯벌과 바다가 조화롭게 이어지는 우도에서는 자연이 내어준 신선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 해산물      | 기간          | 농작물    | 기간     |
|----------|-------------|--------|--------|
| 낙지       | 3월~5월       | 파, 시금치 | 3월~12월 |
| 바지락      | 3~5월, 9~11월 | 강낭콩    | 4월     |
| 서대, 양태   | 5월          | 완두콩    | 4월~5월  |
| 꽃게, 돌게   | 6월~7월       | 마늘     | 5월     |
| 전어       | 8월~10월      | 서리태    | 9월~10월 |
| 낙지(주낙어업) | 9월~11월      | 생강     | 10월    |
| 굴, 꼬막    | 12월~3월      | 배추     | 12월    |





##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우도 낙지 잡는 방법

- 1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주낙을 이용해 낙지를 어획 하는 방법
- 2 주민들이 갯벌로 걸어 나가 직접 잡는 방법



### 낙지 주낙, 어떤 방법일까요?

낙지 주낙은 봉낙시류의 일종으로, 낙시줄에 납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봉을 달고, 봉 위에 낙시를 함께 묶어 어획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낙지의 생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몸통이 낙시에 걸리거나 달라붙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연이 허락한 방법으로 바다의 선물을 거둡니다.



##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전남 섬 여행 날씨 확인  
섬 여행 전 우도 날씨 확인은 필수겠죠?



## 고흥 우도 투어 가이드

### 1 우도 기본 현황 \*2025년 2월 기준

|           |                                          |
|-----------|------------------------------------------|
| 가구·인구     | 49가구 · 77명                               |
| 면적·해안선 길이 | 면적 · 해안선 길이 0.62km <sup>2</sup> · 3.26km |

### 우도 마을 소개



고흥 우도  
랜선 여행하기

\* 영상정보 : 전남필름\_고흥 우도

마을명은 본래 소섬 또는 쇠이라 불렀다. 이는 560년전 고려말 우도에 맨처음 들어와서 살던 황씨가 섬의 지형을 살펴보다가 가로13m, 세로8m 가량 되는 암석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소머리형이 분명하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이를 음역하여 우도라고 했다 한다.  
한편 이 섬의 자생하는 대가 많으므로 황씨들은 임진왜란 때 화살을 만들어 국가에 받쳤고 그 화살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여 마을명도 牛竹島라고 칭하다가 竹자를 없애고 우도라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도는 영화촬영지로도 각광받은 곳이며, 현재는 가족의 섬으로 개발하여 전망대에 올라 남해안의 최고의 절경인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우도는 분명 섬이긴 하나 하루에 두번 신비의 바닷길이 열려 육지가 되곤 한다.

\* 출처 : 고흥관광 홈페이지





## 우도 신비의 바닷길

갈라짐 시간표 확인 >>>>



### ② 우도 물때 정보 (2월~3월)

|    | 날짜           | 물때/물흐름      | 바다갈라짐시간              | 일출/일몰시간     | 월출/월몰시간     |
|----|--------------|-------------|----------------------|-------------|-------------|
| 2월 | 24일(월)       | 4 물         | 10:36 ~ 04:56        | 07:06/18:22 | 04:32/14:01 |
|    |              |             | 11:31 ~ 18:12        |             |             |
|    |              |             | 21:24 ~ <b>05:38</b> |             |             |
|    | 25일(화)       | 5 물         | 21:24 ~ 05:38        | 07:05/18:23 | 05:20/15:09 |
|    |              |             | 22:39 ~ <b>06:14</b> |             |             |
|    | 26일(수)       | 6 물         | 22:39 ~ 06:14        | 07:04/18:24 | 06:02/16:20 |
|    |              |             | 23:35 ~ <b>06:50</b> |             |             |
| 3월 | 27일(목)       | 7 물         | 23:35 ~ 06:50        | 07:03/18:24 | 06:37/17:33 |
|    |              |             | 13:07 ~ 19:18        |             |             |
|    | 28일(금)       | 8 물         | 00:24 ~ 07:26        | 07:02/18:25 | 07:10/18:44 |
|    |              |             | 13:36 ~ 19:51        |             |             |
|    | 1일(토)        | 9 물         | 01:12 ~ 08:03        | 07:00/18:26 | 07:40/19:56 |
|    |              |             | 14:05 ~ 20:27        |             |             |
|    | <b>2일(일)</b> | <b>10 물</b> | 01:58 ~ 08:41        | 06:59/18:27 | 08:08/21:07 |
|    |              |             | 14:34 ~ 21:05        |             |             |
|    | 3일(월)        | 11 물        | 02:45 ~ 09:20        | 06:58/18:28 | 08:38/22:20 |
|    |              |             | 15:02 ~ 21:46        |             |             |
|    | 4일(화)        | 12 물        | 03:33 ~ 10:01        | 06:56/18:29 | 09:12/23:34 |
|    |              |             | 15:27 ~ 22:31        |             |             |
|    | 5일(수)        | 13 물        | 04:24 ~ 10:45        | 06:55/18:30 | 09:50/ ---- |
|    |              |             | 15:50 ~ 23:23        |             |             |
|    | 6일(목)        | 14 물        | 05:26 ~ 11:40        | 06:54/18:31 | 10:34/00:47 |
|    |              |             | 16:08 ~ <b>00:32</b> |             |             |

### ③ 우도 교통 및 숙박·식당 정보

#### 1. 교통 안내

- 우도는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릴 때 육로로 방문할 수 있으며, 이동은 개인 차량 또는 택시를 이용해주세요.

#### 남양면 택시 연락처

| 상호명    | 전화번호          |
|--------|---------------|
| 남양택시   | 010-6790-9211 |
| 남양개인택시 | 010-4653-5999 |
| 남양개인택시 | 010-9430-9632 |
| 남양개인택시 | 010-3622-6012 |

#### 2. 숙박·식당

- 숙박 : (상호명)오드리하우드 / (주소)남양면 우도길 133 / (전화번호)010-2880-3277

- 식당 : 우도에는 식당과 카페가 없어, 방문 시 도시락과 음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 주세요.

\* 레인보우교 입구 푸드트럭에서 간식 구입 가능

##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우도의 인생샷 명소, 이곳은 놓치면 섭섭해요!



### 우도 무지개다리 입구에

도착하면 바다와 갯벌이 빚어낸 풍경이 여행자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도만의 특별한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 레인보우교를 걸어야 만나는 포토존



## Chapter 1. 레인보우교에서 만나는 바다 한가운데 길

우도를 방문하기 전 일곱 색의 레인보우교의 모습이 반겨줍니다. 한걸음 놓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갯벌의 살아 숨 쉬는 생태계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바닷바람이 두 뺨을 스치고, 수평선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물이 차오르면 푸른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맞이하는 노을은 더욱 아름답다는 사실! 해가 수면에 달을 즈음,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하나가 되어 발아래에서는 바닷물이 잔잔히 출렁이고, 햇살이 만들어낸 빛의 물결이 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여러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 Tip!

- 노을이 질 무렵 다리 위에서 사진을 남겨보자. 바다와 하늘이 하나 되는 황홀한 장면이 담긴다.
- 썰물 때 다리 아래 갯벌을 거닐며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우도의 풍경을 한눈에 담은 우도 전망대 ▶

## Chapter 2.

### 우도전망대

#### 바다가 열리는 순간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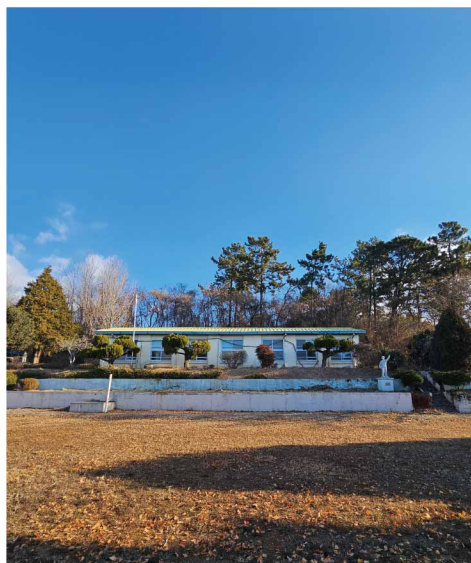
갯벌이 드러나는 순간 우도의 풍경은 완전히 변합니다. 물이 빠지며 넓게 펼쳐진 갯벌 위로 반짝이는 물길에 생기고 햇빛에 따라 우도의 색도 달라 집니다. 우도전망대에 오르면 이 모든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어느 날은 은빛으로, 어느 날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갯벌,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순간 속에 빠져듭니다. 발아래 펼쳐진 풍경과 원형 전망대 사이로 푸른 하늘의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 Tip!

- 물이 빠지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욱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 Chapter 3.

### 남양초등학교 우도분교장, 시간의 흔적을 담은 공간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남양초등학교 우도분교장 (폐교)

우도의 한적한 오르막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과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남양초등학교 우도분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2021년 2월 이후 신입생을 받지 못해 휴교에 들어갔고 현재는 폐교된 상태죠. 비록 학생들의 발길이 끊겼지만, 학교 건물과 운동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세월을 지켜보고 있어요. 낡은 교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 텅 빈 운동장을 감싸는 따뜻한 햇살.

이곳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 Tip!

- 학교 미끄럼틀에 올라서 촬영하면, 폐교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담은 감성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다.
-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학교에 남아 있는 놀이터에서 쉬어가자.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순간 갯벌의 중심 나만의 우도 풍경을 담아보자. 우도의 풍경은 매 순간 새롭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계절과 날씨의 흐름에 따라 색을 달리하죠.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의 모습이 바뀌고 해가 기울면 또 다른 색으로 배경을 물들게 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의 작품 사진이 되는 곳

우도에서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사진으로 담고 싶으신가요?

#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갯벌에서 시장까지 이어지는 우도 주민의 하루

### Chapter 1

#### 바다가 열리는 시간,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AM 05:30

이른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면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한다. '어제 손질한 굴을 다 팔고 와야 할 텐데!'

우도의 하루도 시작된다. 장화를 신고, 망태를 들고, 갯벌로 향했던 엄마들은 이제 서로 짧은 인사를 나누며 삼삼오오 모여 차량에 오를 준비를 한다. 우도는 육지와 연결된 섬이기 때문에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리며 육지로 향할 채비를 한다.



▲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도 주민

### Chapter 2

#### 시장에서 살아 숨 쉬는 바다의 흔적

AM 08:00

바닷길이 열리자 차량과 사람들이 우도를 빠져나와 육지로 향한다. 우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 동강 장은 1일과 6일마다 열리는 5 일장이다. 오랜 세월 동안 우도 사람들은 이 장터에서 갯벌이 준 선물을 팔고 육지의 생활용품을 사 갔다.

'오늘도 손님 많이 오겠지?' 한쪽에서는 꼬막과 소라를 포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싱싱한 굴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굴을 담은 바구니, 소금기 머금은 손, 묵묵히 굴을 고르고 담는 우도 어머니들의 모습이 장터의 가장 생생한 풍경이 된다.

장 소 동강면 원유동 4길 14

장 날 매월 끝자리 1일, 6일 (31일은 제외)

\* 신선한 수산물을 먼저 고르고 싶다면 오전 9시~11시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 고흥 동강 시장에서 만난 우도 주민들



## Chapter 3

##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시간

PM 01:00

장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다시 바닷길이 닫히기 전 우도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가야지, 늦으면 안 돼!' 서둘러 짐을 챙기고 차량을 타고 다시 우도로 이동한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오일장에는 바닷바람과 함께 조용한 여운만 남는다. 바다는 다시 길을 닫고, 우도의 사람들은 또다시 갯벌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준비한다.

## Chapter 4

## 다시 갯벌로, 바다가 내어준 선물을 찾는 시간

PM 03:00

밀물이 차오르던 바닷물이 다시 빠지기 시작한다. 한동안 고요했던 마을이 다시 분주해진다. 사람들은 갯벌로 나갈 도구를 챙기고, 다시 한번 바다로 향한다.

'오늘도 굴이 잘 나오겠지?'

'조금이라도 더 캐야 장날에 좋은 값 받을 수 있지!'

물때에 맞춰 두 번째 갯벌 작업이 시작된다. 어머니들은 허리를 숙이고 손끝으로 갯벌의 결을 더듬는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굴이 숨은 자리를 감각적으로 찾아낸다. 굴껍질이 박힌 자리 살짝만 파내도 속이 짙은 굴이 모습을 드러낸다. 하루에 두 번 자연이 허락한 이 순간 사람들은 바다의 선물을 거둔다.

## Chapter 4

## 갯벌에서 마을로, 그리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며

PM 06:00

갯벌 위에서 두 번째 수확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 내일을 준비한다.

'내일은 여행객이 얼마나 올까?'

'택배로 보내야 하는 굴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주문이 많으니 손질해놓고 내일은 새벽에 다시 나가야겠어.'

우도에서 채취한 굴 일부는 시장으로 일부는 택배로 발송된다. 갯벌에서 막 건져 올린 신선한 굴이 식탁으로 향하는 순간 바다에서 시작된 우도의 하루가 누군가의 저녁 밥상에서 마무리된다. 이렇게 우도의 하루는 두 번의 바닷길을 따라 움직인다. 바닷물이 빠지면 나가고 밀물이 차오르면 돌아오며 갯벌과 시장을 오가며 삶을 이어간다.



▲ 마을로 돌아오고 있는 우도주민들



▲ 두 번째 갯벌 작업을 시작하는 주민



▲ 갯벌에서 굴을 채취하는 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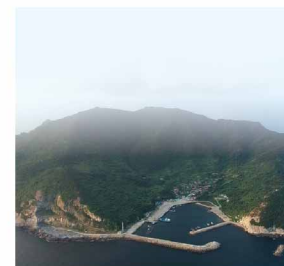


▲ 주문 받은 굴을 손질하는 주민

우도 여행 동강 장날과 함께 즐겨보세요!  
우도는 하루 동안 충분히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동강 5일장이 열리는 날 우도를 방문하면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순간을 따라 우도를 여행하고, 시장에서 우도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껴 보세요. 우도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 NEWS &amp; 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 섬박람회 성공개최와 섬·어촌 활성화에... 전남도, 2556억 투입

전남도는 섬과 어촌지역에 올해 2천556억 원을 들여 섬 정주여건 개선, 어항개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등 57개 사업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 견인

김준성 기자 | 2025. 02. 10



## 행안부, 한섬원-지자체와 섬 발전 사업 TF 구성...정책효과 ↑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섬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섬 발전 사업 정책 논의 전담기구 '섬 발전 사업 TF'를 구성, 신사업 발굴 및 부진한 사업 관리를 강화

김채경 기자 | 2025. 02. 11.



## 해수부, 17일부터 올해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17일~28일까지 15명을 공개 모집

김채경 기자 | 2025. 02. 17



## 서삼석 의원, '해상 대중교통법' 대표발의... 섬주민 교통권 보장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

김채경 기자 | 2025. 02. 18.



## 여수 낭도,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로 선정

전남 여수시는 화정면 낭도 여산마을이 '제5회 유엔관광청(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대한민국 대표 후보 마을로 선정

양진형 기자 | 2025. 02. 18



## 완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써니 데이'... 오는 19일 개봉

'써니 데이'는 오는 19일 개봉하며, 28일 오후 6시 30분에는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주연 배우들이 참석하는 무료 시사회가 진행될 예정

양진형 기자 | 2025. 02. 13.



## 신안군, 송공항~병풍도 항로에 5번째 공영여객선 취항

전남 신안군이 섬 지자체로는 최초로 압해읍 송공항과 병풍도를 오가는 5번째 공영여객선 취항식 지난 12일 개최

김준성 기자 | 2025. 02. 14.

전남 섬 소식은 **한국뉴스**와 함께합니다.





## 김도진 주임님 환영합니다!

 육지보이 섬린이 청년의 첫 출장

**Q** 전남 섬발전지원센터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담당하고 업무는 무엇인가요?

**A** 올해 1월부터 섬발전지원센터에 귀여운 막내로 합류 했습니다. 입사전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했었는데, 잠시 긴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하던 일을 잠시 쉬고 있었어요. 섬을 즐기며,

여행도 다니고, 알바도 하며 노는게 제일 좋다는 보로로같은 생활을 즐겼죠. 그러다 어느 순간, 마그네틱처럼 강하게 이끌리듯 자연의 힘에 끌려 섬발전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늘 마음 한편에는 자연이 주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라 끌렸나봐요. ㅎㅎ 제가 이번에 맡은 업무는 홍보입니다. 아직 홍보 초보 홍린이지만 저만의 감성으로 전남 섬의 아름다운 장소들과 먹거리 등 섬의 토품을 쏙쏙 찾아내 중독성 강한 콘텐츠를 만들어 SNS채널에 팡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Q** 첫 출장 소감을 이야기 해주세요.

**A** 고흥 우도의 첫 출장은 설렘과 놀라움이었다던 것 같아요. 봄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처음 섬으로 가는 출장이라 전날에 잠도 이루지 못했던 거 같아요. 평소 친구들과 여행도 많이 다녔지만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놀라움은 3중 세트였죠. 첫 번째는 생각지 못한 너무 추운 바닷바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만 살던 육지보이이라 섬바람에 큰 코 다치고 왔죠 ㅎㅎ. 두 번째는 감각을 잃어버린 시린 손의 고통이 우도가 간직하고 있는 멋진 풍경에 빠져버려 잊어버렸죠. 마지막은 제가 뽀에 들어가게 된 스토리죠 ㅎㅎ. 분명 여분의 양말도, 신발도, 옷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마법처럼 생기더라고요. 동강시장에서 만난 우도 주민분이 선뜻 내주어준 해루질 장화바지, 시장에서 첫 출장 기념품으로 동료에게 선물 받은 발가락양말과 화려한 우의까지 눈깜박하니 뽀록이 완성되었어요. 덕분에 물길을 따라 걸으며 굴 밭도 구경하고 생생한 영상까지 찍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Q** 어떻게 일하며 성장할 것인가요?

**A** 섬에서 살아본 적 없는 육지보이지만 아일랜드보이로 거듭나 섬의 삶과 문화를 깊이 배우고,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섬에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와 매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앞으로 섬주민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저만의 모험 출장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전남의 섬을 더 다채롭고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옷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